

특별기획



부안군, 1월의 수산물 김·송어

부안군, 1월의 수산물 김·송어

부안군은 갈습과 철분이 풍부한 김과 DHA가 풍부해 두뇌 발달에 좋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송어를 1월의 수산물로 선정·표시했다.

김은 비타민A의 좋은 공급원이며 시력에 관여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해 동맥경화 및 뇌졸중에도 좋다.

송어는 DHA가 풍부하게 함유돼 뇌를 활발하게 해줘 치매예방에 효과적이며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이노자움을 해부종을 완화하고 노화방지를 도와준다.

1월 이달의 수산물은 부안수협몰(www.buanfishyup.co.kr)과 부안 상설시장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승복 김제부시장 취임 1주년

“발전 위해 전심전력 다해”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 특독... 행정의 달인으로도 인정받아

김제시 부시장으로 부임한지 1년 된 이승복 부시장(시정관대행)이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좋은 인품과 겸손한 생활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달인으로도 인정 받고 있다.



이승복 부시장

특히 지난 연말에 국내 대표 산관계 밀집지역인 용지에서 A가 발생되어 지역 전체가 힘든 상황에서는 살처문에 직접 나서 진두지휘를 하고 연말연시 쉬지 않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방역 활동에 솔선수범을 보여 지역의 A가 안정화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김제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새만금 내 부개발,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백구특장차단지 조성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의 행정실무를 조정

관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고, 시정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및 열린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부서·기관 간의 각종 업무 갈등들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원만하게 조정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로 나아가야 할 산적한 과제들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실을 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고, 시민의 고충이 있는 곳은 찾아가 해결하는 발품 행

정을 펼쳤다. 이런 성과로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김제육교 재개설 사업은 중앙부처, 정치권을 수차례 방문하여 재개설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였고, 중앙·외부기관 각종 평가에서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포함한 역대 최다인 38개 부문에서 수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시민과 함께 만든 김제지평선축제가 5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김제인의 자긍심을 높였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합동평가에서는 도내 1위를 차지하여 일 잘하는 지자체임을 인정받았다.

이 부시장은 "김제시 전 공직자가 각자의 힘을 한껏 쏟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언제든지 함께 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겨내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사회에 힘이 되도록 노력”

곽근찬 김제우체국장 취임

제38대 곽근찬 김제우체국장 취임식이 4일 우체국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임 곽근찬 국장은 전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팀장, 우편물류과장, 총무과장, 예금영업팀장, 우정계획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다양한 분야의 공직 경험을 통한 탁월한 안목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근찬 국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지평선의 고향, 김제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체국을 찾는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와 새로운 이익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영전략으로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김제우체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곽근찬 국장은 김제 중학교와 김제 고등학교(제25회)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중퇴했으며 배우자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신바람나고 행복한 직장 만들 터”

전양권 부안우체국장 취임

“책임감을 가지고 부안발전에 기여하는 명품 부안우체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항상 귀기울이는 한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친절한 우체국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난 2일자로 제29대 부안우체국장으로 취임한 전양권(55·사진) 국장은 소통하는 배려정신과 효율적인 열정 정신, 사업에 대한 프로정신을 바탕으로 품격 높은 고객만족경영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생동감 넘치는 우체국으로 만들어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전 국장은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 신바람나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온 힘을 쏟겠다”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것이라며 배려와 협력을 통해 소통문화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백운 출신으로 2009년 행정사무관으로 우정국에 첫발을 디딘 전 국장은 전주·군산 영업과장, 동전주우체국 우편물류과장, 장수우체국장을 역임하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비롯하여 장관상 8회 수상, 전북 지방우정청장 수여 우체국을 빛낸 6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농기, 4-H연합회 회원 모집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는 자연사랑과 인간사랑의 4H 정신을 실천할 4-H연합회원을 연중 모집한다.

4-H연합회는 지·덕·노·체 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인격을 도야(陶冶)·인간의 소질이나 능력을 개발해 바람직한 상으로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시켜 국가 발전에 이바지코자 운영되고 있다.

4-H연합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 부안거주 영농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H인의 밤'에서는 2016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이를 발판 삼아 2017년에는 다양한 교육·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청년 4-H회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단 한 건의 산불 없는 정읍 만들기’ 총력

시, 2~5월 산불조심기간 지정...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정읍시가 올해도 단 한건의 산불 없는 정읍' 만들기에 총력을 쏟는다. 시는 2월부터 오는 5월까지(기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 및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시기동 제외)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이달부터 3월까지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는 장기 기상 전망과 매년 봄철 영농 폐기물 관련 소각이 많고, 장월 대보름 등의 민속행사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의 산불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불방지 기간에는 주말에도 전 직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가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또 효율적인 산불 예방과 민간의 사대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감시인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2월 중 읍면동 산불담당자 업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철



산불진화훈련

저하게 근무 수행을 확인하며 산림연접지 산불 위험요인 제거에 나선다. 특히 시는 산불 예방용 드론과 진화차량, 감시 카메라(5대)와 산불 발생 시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장비 등 7종 468여대의 진화장비를 점검했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42명과 산불 감시원 78명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산불 예방에 총력을 쏟은 바 있다. 봄·가을철 건조기 산불 감시인력(111명)을 운영하고 산불 진화 장비 확보, 산불 감시인력 초동진화대체 구축을 위한 훈련 강화, 수차례의 산불 예방 캠페인과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 25%

김제시는 2017년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제시 농가의보험가입에 경제적 경감을 위하여 납입 보험료의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이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금은 총 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등), 기타

(사슴, 양, 꿀벌)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순해보험을 비롯하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앞으로도 관내 축산농가의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